

OPINION

2025년 4월 9일 수요일

독자권익위원 칼럼

잊혀지지 않을 권리

이지안

독자권익위원
잇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전 국민을 충격과 울분, 슬픔에 잠기게 했던 2014년 4월 16일, 300명이 넘는 목숨이 어이없는 죽음을 맞은 날. 한 지역의, 한 학교 학생들이 제대로 쫓을 피워보기도 전에 무더기로 사라져 버린 그날, 부푼 마음을 안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던 이들의 꿈을 앗아간 날. 다음 주면 벌써 세월호 11주기가. 대형 여객선이 갑자기, 왜 전복하게 됐는지 여전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사고의 그날부터 10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 없는 건 사고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일 것이다.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든 초기 대응만 잘했다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선실 내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목숨을 잃었다.

사고 초기에 전원 구조했다는 속보가 나와 안심했지만 이후 이것이 오보임과 동시에 구조자와 사망자 인원이 계속해서 변동되어 이들의 생존을 바라는 가족들의 심장을 찢어지게 했다.

그뿐인가. 특별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재난 지역(안산과 진도)에 찾아와 기법사진을 찍고 가는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유가족들의 상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참혹한 사건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짓을 벌인 것이다.

그 이후에는 어땠나. 유족들을 향해 '지겹다', '이제 그

만하지'고 폭언을 쏟아내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다. 배후 세력이 있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음모론을 꺼내는 이들도 있었다. 다행히 얼마 전에는 자신의 유세 현장에서 유가족들에게 '시체팔이를 한다'며 무모적인 인사를 한 차명진 前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가족에게 보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유가족들에게는 11년이나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통이 현재진행형이다. 국가에서 보상 범위를 정하고 진행하려고 하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보상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원인 규명을 케링 그들을 잊어가는 이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전, 또다시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 지인들과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던 이들의 생명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제주항공 참사다.

이 사고로 인해 탑승객 181명 중 단 두 명만이 살아남았다. 더욱이 연말을 맞아 대부분 가족 단위로 떠난 여행객들이었기에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조류 충돌로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사고의 시작이지만 비상착륙을 시도한 항공기가 콘크리트 등덕에 충돌하면서 대형사고가 됐다. 문제는 처음 비상착륙을 시도할 때 조종사는 예정된 활주로인 1번으로 착륙하겠다고 했으나 관제탑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다. 조종사와 관제탑이 여러 차례 교신한 끝에 동체착륙을 했지만 결국 19번 활주로 끝에 있던 대형 콘크리트와 충돌하고 말았다.

이 와중에도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나타났다. 유가족을 대표해 앞에 나선 이가 실제로 가족이 아니라거나 이번 사고가 무속과 관련이 있다. 여객기 사고 영상을 어떻게 찍었느냐는 등 음모론이 고개를 들었다. 심지어 무안공황이 허가나 나서는 안됐다가나 '전남이 전담했다'는

등 지역 비하 발언이 각종 인터넷상에 쏟아졌다.

아무리 공감 능력이 결여됐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할 텐데. 얼마나 이기적이면 타인의 고통을 하찮게 여길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말 많은 이들이 무안공항을 찾았다. 유가족들을 위해 대기 장소가 마련되고 전국 각지에서 구호품을 보내왔다. 매일 개인이며 단체 할 것 같이 찾아가 유가족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살폈다. 절망과 고통에 빠져본 자만이 그 힘겨움을 진정 이해한다고 했던가. 함께 한 수많은 이들 속에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원봉사를 하며, 제주항공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그 고통을 표현할 방법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현장에 함께하진 못했지만, 많은 이들이 단 한 명의 생존 소식이라도 들려오길 바라며 TV 앞을 떠나지 못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노란 리본으로 오랜 기간 추모에 동참하기도 했던 것처럼 제주항공 사건도 많은 이들이 기억하며 추모할 것이다.

이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시간이 지났다고, 내 일이 아니라고 모른 척해서도, 잊어서도 안 된다. 유가족들을 향해 이제 그만하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가볍게 내뱉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칼처럼 예리하게 박혀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낼 수도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해야 유가족들이 정확한 사건 규명과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는 잊혀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우리가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고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



광주 남구청이 공동주택관리 주무 부서에 주택관리사를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지 2년이 됐다. 4월 3일 담당 국장의 자평이기는 하지만 '100%를 넘어 120% 역할로 주민 민원 해결에 큰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책임 공무원의 소감은 그 과정과 결과에서 기존 공무원 사회가 반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무원에게 공동주택관리 부서는 기피 부서라고 할 정도로 민원의 최전선에 놓여있다. 현장 경험을 갖춘 주택관리사가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할까?' 많은 걱정도 주위에 있었지만 역시 기우였다. 정작 당사자가 많이 힘들어했던 것은 관리 현장에서 밀려오는 민원의 강도였다.

2년 전 남구의 아파트 관리 정책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은 남구청장의 신속한 의지에서였다. 몇 달 수 있었다. 현장 중시 정책은 관리 현장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순환보직에 익숙한 공무원만으로는 각각각자의 민원 해결은 한계에 봉착하고, 반복된 속제는 후임자의 몫이 됐다. 마치 민선 자치단체장이 현장을 중시할 것 같지만, 의외로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치단체장마다 다르다.

3년 전 남구도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관리 현상이 많았다. 이제 그 추세는 줄어들고 있으며, 민원 해결 방법도 아주 진절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남구의 발 빠른 움직임의 효과는 아파

광주 남구청, 주택관리사 공무원 채용 2년

트 증가에 따른 적절한 대처였다. 여기에 더해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남구도 즉시 공동주택관리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 사회는 공무원을 믿는다. 공무원은 사회를 지탱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무원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 사람들의 욕구는 더 무겁고 다양해졌으며, 혼란스럽다. 이를 질서 있게 정돈하는 데는 민·관 공동 전략이 발휘되어야 한다. 공무원 사회와 다른 바깥세상의 여러 경험이 문제 해결에 주효할 때가 많다. 외부 경험을 경계할 필요도 없고, 장벽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이미 광주는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섰고, 이곳에서 사는 시민들은 70%를 웃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강남개발로 아파트 건설에 불을 댕겼다. 1980년대에 들어와 86아시안게임 그리고 88올림픽으로 아파트는 우후죽순처럼 지어졌다.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려도 틀리지 않는다.

특히 광주는 전국에서 세중시를 제외하고 가장 그 비율이 높다. 아파트를 짓고,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거나 혹은 배우지도 않았다. 짧은 아파트 역사가 담긴 흥취를 그리고 있는 셈이다. 순진하게도 시골 마을쯤으로 여겨 공동체를 부르짖지만, 정작 위 아래 층 칼부림 나고도 누구 하나 현관문을 열어보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 현장을 너무 가볍게 보지는 않았나 천천히 뒤돌아봐야 한다. 아파트 관리 정책에서 시정을 비롯해 광주 5개 구청에 정책 네트워크가 마련되고 경험이 공유

돼야 한다.

도도한 역사는 의식주라는 세 줄기의 흐름이다. 요컨대, 인류의 역사가 의식주의 역사였다. 정치인은 시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언젠가 혼란에 직면했다. 먹고, 입고, 집에서 사는 문제 해결이 정치인의 책무였다. 그중에서도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최소단위가 집이다. 지금 시민 대부분이 사는 집은 아파트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해야 한다.

아파트에서 불거진 문제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또 하나의 갈등의 요소가 돼버렸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그 많은 과태료가 비송사건으로 가서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24년도 경기도 내 행정관청에서 부과된 과태료 중 68%가 취소되거나 감액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한 고민은 없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의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별다른 예정은 없어 보인다.

그러던 차에 2018년에 북구청에서 설치해 운영했던 공동주택관리상담센터에 대한 북구청 공무원의 호의적인 반응이 알려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자치구에서도 상담센터를 열기 시작했다.

비록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정말 다행스럽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상담센터 운영은 북구청의 모범적 사례가 있고, 남구청의 주택관리사 공무원 채용 경험을 살린다면 광주다운 공동주택관리 모델이 타 시도를 이끌 것이라고 희망을 건다.

취재수첩

광주가 지켜낸 민주주의

양홍민

사회교육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 4일 광주 시민들의 발걸음은 동구 5·18민주광장으로 향했다.

이날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주관으로 열린 제21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 '승리보고대회'는 단순한 정치적 환호를 넘어 연대와 기억, 실천의 광장이었다.

광장에 모인 1500여명의 시민들은 한 손에 '윤석열 퇴진', 다른 손엔 '사회대개혁'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탄핵정국과 맞물려 K-POP 팬덤 문화의 상징이자 집회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형형색색의 응원봉도 가득했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모인 이 집회는 전통적인 항쟁 방식과 현대적 표현이 뒤섞인 새로운 민주주의의 축제로 일했다.

그러나 '축제'의 걸모습을 견어내면, 그 안에는 5·18 정신의 실천적 계승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80년 5월, 군화발 아래서도 성금과 주먹밥을 나눴던 그 마음은 이날도 이어졌다.

광장에서 시민들은 주먹밥과 떡, 커피를 나누며 단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를 격려했다.

이는 단순한 연대가 아닌, 광주의 방식으로 구현된 정치적 연대의 실천이었다.

단상에 선 발언자들은 모두 평범한 시민이었다. 병원 노동자, 청년 학생, 지역 활동가들. 그들은 하나같이 "이번 투쟁은 정권 반대나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5년 4월의 광장은 80년 5월의 광장과 닮아 있었다. 역사적 순간마다 '광주'는 늘 앞서 있었고, 그 중심엔 언제나 '시민'이 있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명확해졌다. 광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단순한 여론이 아닌 민심의 실체로 직시하는 일. 그리고 실질적인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사설

'염전 노예사건'에 미국 수출중단이라니

천일염은 바다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현재 주로 서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안 천일염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유량이 풍부해 세계적인 명품으로 인정받아 왔다.

이런 우리나라 천일염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다. 지난 2014년 신안군 신의도 태평염전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직업을 소개시켜준다고 꼬여 감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염전노예'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수년간 하루 5시간도 지지 못한 채 소금 생산 등 온갖 노동에 동원됐지만 돈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가 진행돼 염전 임차인들 관련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 등 별다른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전남도가 대책을 내놓으며 이번 사건이 일단락된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신안군 그 염전에서 7년간 일한 후 400만원밖에 받지 못한 지적장애인의 사연이 공개되는 등 또 다른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연 이은 '염전노예 사건'은 이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하게 됐다.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염전 노예' 논란을 일으킨 이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 2022년 관계자를 목격에 직접 내려보내 이 사건을 조사하고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종합 보고서를 미국 국무부에 보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공익단체가 인권침해 등을 유발한 이 염전에 대해 미국에 수입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물론 전남 천일염의 미국 수출량은 지난 2023년 전체 생산량 18만 5000t 중 245t(5억원 상당) 밖에 안되고 그 염전은 연간 7~8t(1억원 상당) 밖에 안돼 이로 인한 전남 농산물 등 수출피해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제노동 등의 사유로 미국이 수입 금지 조치한 나라는 중국,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 12개국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명단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정말 참피한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영암군 '천사펀드' 성공적 정착 기대

영암군의 '천사펀드'가 생계가 막막했던 군민들에게 '기쁨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천사펀드는 지역사회가 심실일반으로 조성한 모금을 기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군민에게 무이자·무담보·무보증의 3무 방식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지역공동체가 함께 조성한 따뜻한 금융이 바로 영암형 사회적 금융이라는 얘기다.

영암군은 이 펀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준비 작업을 철저히 했다. 먼저 지난해 9월 영암신협, 사회적협동조합 영암지역네트워크와 천사펀드 조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영암군은 사업총괄 및 대상자 모집, 영암신협은 대출상품 취급 및 상환 관리, 영암지역네트워크는 재원 조성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이후 펀드 모금에 들어갔다.

김의준교과목 유동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담아가 1000만원을 기부하며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고, (유)해담도, ㈜보원엠앤피, ㈜가림인터스트리 등 지역기업과 개인이 펀드 조성에 적극 참여했다. 4000만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한 천사펀드는 이달부터 대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출 신청자는 영암군 1차 선정, 영암신협 자격 조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직장생활을 하다 몸이 아파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까지 몸져누워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을 했던 A씨가 첫 대출자가 돼 500만원을 받았고 대학생 아들과 단 둘이 사는 시·지체 장애인 B씨도 500만원을 대출받아 한시름을 놓게 됐다. 이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월리금 상환을 위해 월 8만원 가량을 신협에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이처럼 긴급 생활자금 등을 대출해 간 영암군민은 13명이라고 한다.

영암군은 천사펀드가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이 '고급리 대출-이자 증가-신용불량'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규모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천사펀드가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연대와 상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금융 모델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게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정 치 부 370-7010	논 설 실	370-7060		
우편번호 61234	경 제 부 370-7020	뉴미디어본부	370-7222		
대표전화 (062) 370-7000	사회교육부 370-7030	원 원 실	370-7000		
팩스 (062) 385-5400	지역사회부 370-7040	사 업 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광 구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편 집 부 370-7082	독자관리사	370-708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